

산업화가 전통주거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매개변인들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f the Socio-Cultural Parameters in the Impacts of Industrialization on the Traditional Dwelling Space

김 정 아*
Kim, Jeong-Ah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industrialization upon the traditional house and dwelling space and their socio-cultural parameters. By now, in architecture the industrialization has been studied in relation to the formation of modern architecture and the traditional house or housing, as though it were a thing already concluded. For this reas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ization and traditional housing has not been surveyed sufficiently. In reality, the traditional house, however, survives in spite of industrialization, but certainly modified. To examine the effects of industrialization on the traditional house and housing, we must deepen the concepts of both and show how they are entangled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and that they are internal to each other. The parameters does not act independently on the organization of the dwelling space, but in a system formed by them. After all, the combined action of the parameters effected by industrialization entails the de-structuration of the traditional arrangement in traditional house, and tends toward, although it does not realize completely, the re-structuration for the arrangement of intimacy embodied in modern house.

I. 머리말

전통 주거와 산업화는 전혀 다른 시대에 속해 있으므로 양립불가능하며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논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의 산업화는 건축자체의 산업적 생산과 이를 위한 자재의 표준화, 건축에서의 기계의 활용 등을 뜻하며 오로지 근대적인 건축에만 결부되어 연구된다.¹⁾ 이런 현실에

서 전통 주거에 대한 연구는 산업화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사실상 한국의 전통건축 혹은 전통주거에 대한 연구는 근대건축에 대한 연구와는 별개의 것인 것처럼 이루어진다. 즉 한국의 전통건축과 근대건축이 공통된 건축언어에 의해 접근되기보다는 전통건축은 근현대건축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작동하는 것처럼 다루어지고, 양자를 매개시켜 줄 향들이 없는 별개의 특수한 언어로 접근되는 경향을 보인다.²⁾ 그리하여 전통주거에 대한 연구

* 영산대학교 건축학부 초빙교수

1) 예컨대, 산업화를 특집으로 다룬, 프랑스의 건축 전문 잡지 *Techniques & Architecture* 의 293, 327~8 호, 프랑스의 대표적인 백과사전인 *Encyclopédie Universalis* 의 「건축의 산업화(Industrialisation de l'architecture)」, *Evolution historique des concepts en matière*

d'industrialisation de la construction, 1919-1970. par le C.O.D.R.A. janvier 1973. J-P. Portefait. 등은 자재 생산 체계와 건설체계의 산업화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2) 이러한 분리는 전통건축 혹은 전통주거에 대한 연구

는 현재와의 관련성에서가 아니라 과거에 종결된 형태로서만 다루어진다. 실제로, 한국 주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때는 전통주거에 변화와 소멸이 강제되던³⁾ 1920~30년대와 1970년대 이후이지만, 연구의 시각이라는 면에서 이 두 시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을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의 건축에 대한 문제제기는 중요하며 해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된 한국의 산업화는 한국의 사회 문화 체계의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 왔으며, 주거도 예외일 수 없고, 그 결과로 오늘날 산업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전통적인 집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식으로의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곧, 전통 주거의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양상을 띠고 이루어지는가, 다른 말로 하면, 주거 공간의 전통적인 구조는 어떻게 해체되고 어떻게 재구조화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서, 산업화와 전통 주거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통 주거에 대한 산업화의 영향의 양상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산업화와 주거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고 산업화와 전통주거가 접촉하는 매개변인들을 찾아낼 것이다. 여기서는 1989년 봄부터 최근까지 필자가 행한 현지조사⁴⁾에서 얻어진 자료의

내부에서도 보인다. 즉 건축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주로 건축물의 구조적인 측면과 배치와 형태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면, 기타의 인류학, 민속학, 지리학, 가정학 등의 인문 사회과학자들의 전통주거에 대한 연구는 추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거는 주택과 생활의 합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자는 서로에 대해 외면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3) 일제 학자들이 연구를 주도했던 시기인 1920~30년대는 '위생'과 '문화'의 이름으로 한국전통주거를 개량하고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들여놓으려는 움직임이 벌어졌고, 한국인 학자들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1970년대는 산업화가 일정한 궤도에 오르고 전통적인 주거가 산업화로, 그리고 그 과정의 한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세마을 운동으로 사라져 가기 시작한 때이다.

분석에 토대를 두고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주거의 사회문화적 차원과 매개변인

20세기 후반들어 주거의 개념은 인문사회과학과의 접촉을 통해서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로 인간의 '거주하기'는 문화적 모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거는 사회문화적인 산물임이 분명해지고 있다(Rapoport 1969, Clément 1982, Moley 1984, Waterson 1990 등).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주거가 갖는 사회문화적인 차원들을 아래와 같이 7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겠다.⁵⁾

1. 자연환경과 건축 테크놀로지

집은 무엇보다도 때로는 야수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호의적이기도 한 자연에 대한 적응 과정 속에서 인간이 창출한 길들여진 공간(the domesticated space)이다. 인위적인 환경으로서의 집은 자연과의 대립 및 조화를 함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 지형 등을 아우르는 자연 환경과 건축 테크놀로지의 형태와 수준이다. 우리는 지구상의 여러 민속주거들을 볼 때 기후와 지형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쬐이고 모래바람이 부는 건조한 북아프리카와 근동지방에서 평지붕과 벽체를 진흙으로 구축한 '口' 자형 주택을 보면, 주거에 대한 기후의 영향을 실감할 수 있다(René, 1926). 진흙으로 된 두터운 외벽과 평지붕은 모래바람이 주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뜨거운 태양열을 차단하는 데

4) 김정아 1989, 1996 과 Kim 1999 는 이때 행한 조사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

5) 이 가운데 '자연환경과 건축 테크놀로지', '생산방식', '가족구조와 가구집단', '사회구조와 이웃관계' 등은 Moley(1984)에 의해 지적되고 검토되었으며, '관념체계'는 Rapoport(1969), Clément(1978) 등에 의해 연구되었고, '인구밀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Villele(1951)에 의해 분석되었다. 그리고 욕구, 일생활, 그리고 공간 간의 관계의 문제를 Lauwe(1967)가 언급한 바 있다.

유용한 이러한 주택유형은 또한 건조한 기후 속에서는 반영구성(半永久性)을 지닌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온돌과 대청마루가 결합된 우리의 전통주택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라는 연교차가 큰 한반도의 기후상황에 대한 건축적 반응임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자연환경은 이렇게 인간이 대처해야 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대처에 동원되는 수단인 건축자재를 제공하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한편, 기후, 지형 등의 자연환경은 곧바로 건축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자연 조건의 건축형태에 대한 영향은 건축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후에 대한 반응과 지형의 이용, 그리고 건축자재의 추출 등은 모두 건축 테크놀로지의 형태와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어진 자연환경의 제약 속에서, 그리고 동원되는 테크놀로지의 한계 내에서 원하는 미시적인 기후를 창출하는 인위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 테크놀로지는 역사적으로 축적되는 일정한 지식체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일상생활의 형태와 도구들

집은 일차적으로 휴식과 재생산을 위한 공간이다. 여기서 재생산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노동력의 재생산(재충전)과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출산과 양육)이 그것이다. 즉, 이곳에서 잠을 자고 먹고 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등의 주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위한 보조적인 활동들(조리, 세탁 등)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질적인 도구들(조리 도구들, 의생활과 관련된 의복 수납 용품)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도구들은 사용과 보관을 위해서 주거공간 속에 배치된다. 유념해야 할 것은 집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이러한 측면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식욕, 수면욕, 성욕, 애정 등)과 긴밀한 관련을 갖지만, 문화인류학적인 연구들이 보여 주듯이 이러한 욕구들의 표현은 언제나 문화적으로 방향지어진 통로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이다(로저 키징 1989).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뒷받침하는 물질적 도구들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그 배치의 방식 등도 문화적으로 결정된다.

3. 생산방식

집은 생산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일터와 휴식처로서의 집이 비교적 명확히 분리된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이며,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집은 일터로서의 역할도 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택 내부에 생산 활동과 관련된 공간을 갖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우리 전통 주택을 예로 들면, 외양간이나 헛간, 젓간 등과 같이 농업 생산과 관련된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마당 같은 다기능적 공간도 탈곡이나 농작물 말리기 등과 같은 생산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농업 민족과 농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몽골이나 카자흐의 유목민들의 이동식 주택인 유르트도 이러한 성격을 지닌다. 그들은 봄철에 갓 태어난, 양과 염소의 새끼들을 한 동안 유르트 안에서 돌본다(Marois 1998). 산업화 이전의 유럽의 도시에서도 공방은 장인의 주거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손세관, 119 쪽). 근대에 이르러 사라져 가던 집이 갖는 이러한 성격은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생계 방식이나 생산 방식이 주거형태와 공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4. 가족구조와 가구집단

집은 일정한 주거집단을 전제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주거집단, 즉 가구집단은 가족구조 혹은 친족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우리의 전통 사회에서 차남 이하는 혼인하면 새로 집을 장만하여 분가한 뒤에, 가족원의 수가 늘어나고 그의 장남이 장가를 들 때가 되면 집을 증축했다. 가족주기에 따른 이러한 집의 확장은 집이 가구집단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이다. 또한 중국 복건성(福建省)의 한족(漢族)

의 일파인 객가족(客家族)에게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집합주택인 환형토루(環形土樓)의 존재는(茂木計一郎 외 1991, 224~231쪽) 이들이 지닌 부계동족집단의 강한 유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구집단의 성격이 주거 속에 표현되는데, 나아가서 가구집단 내부의 지위와 역할의 구분도 역시 주거 속에 반영된다(Tokarev 1974).

5. 사회구조와 이웃관계

집은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일차적으로는 가구집단을 위한 공간이지만, 그 가구집단의 대사회적(對社會的)인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하여, 신분제 사회에서 흔히 신분의 차이는 집으로 표현된다. 조선시대 고관의 탈것(사인교, 초선, 말, 가마 등)이 출입할 수 있게 만들어진 솟을대문은 곧 그 집 주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였다. 그리고 신라시대의 '옥사제한령(屋舍制限令)', 조선시대의 '가사제한령(家舍制限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신분에 따라 집의 규모를 제한하였다(신영훈 1983). 또 다른 예로는, 대혁명 이전의 프랑스의 구체제(ancien régime)의 신분질서는 바로크 양식이라는 건축적 표현을 갖는데, 왕족과 귀족, 그리고 평민인 부르조아지는 집의 규모와 화려함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신분의 집을 가리키는 용어도 '팔레(palais : 왕족)', '호텔(hôtel : 귀족)', '메종(maison : 부르조아지)' 식으로 달랐다(Elias 1983). 신분제가 사라진 오늘날 프랑스이건 한국이건 부(富)를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집은 돈이 사회적 계층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집은 그 내부에 이웃이나 외부인과의 교제를 위한 공간을 지니기도 한다. 우리 전통주택에서 바깥주인의 공간인 사랑방의 주된 기능은 외부손님의 접대와 교류였다. 바로크 시기의 프랑스의 예를 다시 들면, 귀족의 저택과 왕족의 궁인 호텔과 팔레의 경우에 외부인들을 위한 연회공간인 살롱(salon)이 평면배치와 동선상에서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이진경 2000). 외부인과

의 교제를 위한 공간이 없는 주택유형을 지닌 사회의 경우에는 다기능을 지닌 공간의 활용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여름에는 가구원들의 활동이 주택 내의 다른 방들로 확장되고 겨울에는 벽난로가 있는, 일종의 거실인 '투파(tupa)'로 활동이 집중되는 핀란드의 전통주거를 분석한 몰레이(Moley 1984)는, 외부인의 신분과 가족원과의 관계에 따라 '투파' 내부에서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의 정도와 그가 자리잡고 잠을 잘 수 있는 곳 등을 잘 분석해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원룸(one-room)형 주택인 몽골 유목민의 유르트(게르)의 경우에도 손님 접대와 관련된 공간의 용법에 대한 규칙이 존재한다. 예컨대, 외부인은 노크를 하거나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곧바로 문을 열고 '게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들어간 뒤에는 엄격한 규칙의 제약을 받는다. 곧, 그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그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주인과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까다로운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다(Marois 1998). 그렇다고 하면, 근대에 들어서 공간의 사적인 성격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거는 본래 사적인 성격에 못지 않게 사회적이며 공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주거는 신분제도, 이웃관계, 마을공동체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6. 관념체계

집은 관념체계(표상 및 가치의 체계)와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그 하나는 좌향은 어디로 해야 하고 대청은 건물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하며 평면 배치는 어떠한 야 한다는 식으로, 주택 혹은 주거공간에 대한 모델이 존재하며 이러한 모델에 따라 주거공간이 실현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거 속에 초자연적인 존재 혹은 상상적인 존재들이 표현되고 주거공간은 이러한 상상적인 존재들과의 거래를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한국의 전통 주택에서 성주신, 업신, 조왕신, 삼

신 등과 같은 가신(家神)의 신위가 자리를 잡으며(신영순 1993), 조상숭배를 위한 제사를 위해 별도의 사당을 세우거나 아니면 대청에 이를 위한 시설인 감실이 마련되기도 한다. 또 출산시에는 외부의 사악한 귀신과 부정탄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대문에 금줄을 달기도 했다.

7. 지역적 인구밀도

집의 실현에는 지역적 인구밀도가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은 전통주택이나 민속주택들을 말할 때에는 쉽게 인식되지 않지만, 오늘날 도시에서 펼쳐지는 아파트 등의 고밀도 집합주택을 통해 그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는 다른 집들과의 사이에 여유 있는 매개공간을 지닌 민속주택들이나 전통주택들이 낮은 인구밀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인도네시아의 일부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보이는 '긴 집(long house)'은 일정한 지역의 인구밀도에 의해 그 형태가 영향을 받는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물이 위로 치솟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길게 늘어짐을 주목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 마을 구성원들이 하나의 긴 집에서 생활한다. 물론 그 내부에는 기본 가족(elementary family)을 단위로 한 공간의 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일정한 지역에 농지를 확보하여 정착한지 얼마 안 되는 '긴 집'은 길이가 짧으며 세월이 흘러 구성원들과 가족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긴 집'에 덧 짓기를 함으로써 더욱 길어지게 된다(Condominas 1957).

지금까지 우리는 주거가 갖는 사회문화적인 차원들을 일곱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차원들은 곧 사회문화체계의 하위체계들이다.⁶⁾ 그렇다면, 이 하위체계들의 변화가 주거 형

태와 주거 공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들을 매개변인들⁷⁾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이것들에 기호(A~G)를 매겨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① 자연환경과 건축 테크놀로지 A
- ② 일상생활의 형태들과 도구들 B
- ③ 생계형태와 생산방식 C
- ④ 가족구조와 가구집단 D
- ⑤ 사회구조 E
- ⑥ 관념체계 F
- ⑦ 지역적 인구밀도 G

Ⅲ.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산업화

건축에서의 산업화는 무엇보다도 자재의 산업적 생산과 표준화, 건축의 기계화를 상기시킨다. 건축학계에서는 오로지 근대적인 건축 자재, 기술 등과 관련해서만 산업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제한된 생각은 산업화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의 주거의 문제를 정당하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된다. 주거라는 개념이 산업화와와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주거의 개념이 확대되었듯이, 산업화의 개념도 확장되어야만 한다. 물론 본래의 의미에서 산업화라는 어휘는, 먼저 생산 방식의 변화, 곧 수공업 생산에서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으로의 대체를 야기하는 공장제 생산의 일반화를 뜻한다. 그렇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산업화는 기계의 집중적인 사용에 의해 사회적 총체를 변화시키고 재구조화하는

6) 그렇다면 주거도 이러한 사회문화체계를 구성하는 부분이 된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거(housing)로부터 생활공간(habitat)에 이르는 하나의 연속체는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사람들 간의 관계, 곧 사회적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하여 「생활공간-주거」의 연속체는 가족으로부터 사회 구조의 총체로 이어지는 연속체와 상응한다. 이런 점에서 생

활공간과 주거는 각각 자연의 대지 위에 새겨진 사회와 가족에 대한 이미지들이다. 주거가 가족 생활의 물질적 틀이라고 한다면, 생활공간은 한 사회의 물질적인 틀인 것이다(Lauwe 1967).

7) 매개변인(parameter)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연역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증적 입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논리적 명증성에 의해 그 타당성이 확보된다.

누적적인 과정으로서 이해되고 있다(Perroux 1962).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넓게 해석된 산업화, 즉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다양한 양상들 속에서의 산업화이다. 그렇다면, 넓은 뜻의 산업화는 기술 경제적인 현상들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현상들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산업화는 사회문화 체계의 다양한 수준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⁸⁾

첫째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건축에 있어서의 좁은 의미의 산업화를 들 수 있다. 그것은 곧 건축 자재와 테크놀로지의 산업화로서, 건축 자재의 산업적 생산과 표준화, 그리고 건축의 기계화로 나타난다.

둘째로, 경제 구조의 차원에서, 기계화와 기계제 공업의 확장에 의해 공업은 농업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며 농업은 상대적인 중요성이 감소된다. 그에 따라 새로운 환경 아래서 살아남기 위해 농업은 농기계의 도입과 작목의 다변화 등을 통해 전통적인 농법을 탈피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된다.

셋째로, 지적 인구적인 차원에서, 이촌향도(離村向鄕)의 인구이동을 가져온다. 그 결과 도시민의 수가 농촌인구를 넘어서게 된다. 이와 아울러, 공간의 차원에서 도시화가 진행되어 새로운 도시의 창출과 기존 도시의 팽창으로 거대도시

(megalopolis)가 형성되기도 한다.

넷째로, 가족 구조의 차원에서, 확대 가족이 보편적이었던 사회의 경우에, 사회적 이동성의 증대에 따라, 확대 가족(extended family)이 기본 가족(elementary family)으로 변화된다.

다섯째로, 가구 집단의 성격에 관해서 말하면, 가구 집단은 산업화 이전의 사회들에서 가구 집단이 소비의 단위이자 생산의 단위인 데 반해서, 산업 사회에서는 소비의 단위로서만 기능하는 경향이 있다. 가내수공업에 의지하던 생산의 기능이 산업화 과정 속에서 가구 집단으로부터 기업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노동력과 생산 수단의 분리의 한 표현이다.

여섯째로, 높은 사회적 이동성, 노동력과 생산 수단의 분리, 일터의 주거공간으로부터의 탈영역화(기업이라는 새로운 경제단위의 등장과 함께) 등은 이웃관계의 중요성을 약화시킨다.

일곱째로, 일상 생활의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과 소비재의 부단한 창출에 의해 점차 더 지배된다.

여덟째로, 가치 체계와 표상 체계의 차원에서, 산업화로 말미암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 경제적인 조건에 조용하는 전통적인 가치 체계의 권위와 타당성을 허물어뜨린다. 한편, 새로운 사회적인 상황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사고체계가 느리게 형성되기 시작한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지금 살펴본 산업화의 사회문화적 영향들⁹⁾을 다시 정리하고 숫자(1~8)를 매기면 아래와 같다.

- ① 건축 자재와 테크놀로지의 산업화 (1)
- ② 공업의 비중강화와 농업의 약화와 변신 (2)
- ③ 이촌향도와 도시화 (3)
- ④ 확대가족에서 기본가족으로의 변화 (4)
- ⑤ 가구의 소비단위화 (5)

9) 산업화가 사회문화적 과정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산업화의 사회문화적 양상을 나열하자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무수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적시된 것들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러한 것이다.

8) 화이트(Leslie White)의 견해로 대표될 수 있지만, 인류학에서 사회문화체계는 크게 기술·경제체계(자연환경, 인구, 테크놀로지, 경제적 관계 등), 사회체계(가족구조, 친족조직, 정치조직 등), 관념체계(법률, 가치관, 세계관 등) 3 개의 하위체계로 나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Bee 1974). 그리고 이들 세 하위체계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상관관계 속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술·경제체계의 변화가 사회체계의 변화를 초래하며, 나아가서는 관념체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산업화는 인간의 자연과의 관계방식인 기술·경제체계의 변화이지만 이것은 사회체계를 거쳐서 마침내는 관념체계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된다. 즉 산업화는 사회문화의 모든 국면에 그 존재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 ⑥ 이웃관계의 약화 (6)
- ⑦ 새로운 상품의 부단한 창출 (7)
- ⑧ 전통적 관념체계의 약화 및 붕괴 (8)

IV. 주거 공간에 대한 산업화의 영향과 매개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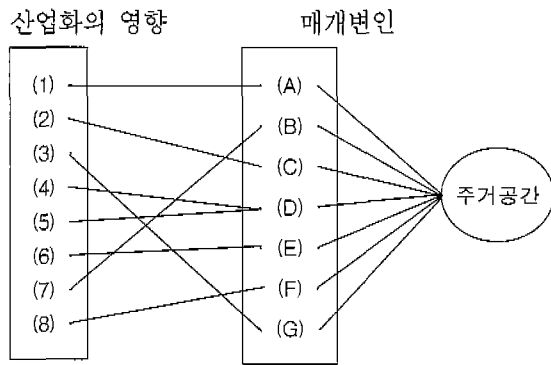
그러면, 산업화의 양상들은 어떻게 주거와 관련이 있는가? 전자는 후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주거는 그 내부에 사회적 총체를 한정하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반영한다고 할 때, 마찬가지로 산업화도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의 특수한 한 형태를,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계의 한 형태를 반영한다. 주거와 산업화가 이렇게 사회문화 체계의 일부를 이루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계를 함축한다면, 이 주거와 산업화라는 두 실체는 서로에 대해 외재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II 장에서 매개변인을 A 에서 G 까지 7 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매개변인이 이와 같다면, 이러한 변인에 작용하는 어떠한 변화도 주거의 재구조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III 장에서 살펴본 산업화의 사회문화체계에 끼치는 영향은, 주거의 매개변인이 사회문화체계의 하위체계임을 고려하면, 주거공간의 재구조화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산업화가 끼치는 사회문화적 영향들이 매개변인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자.

건축에서의 좁은 의미의 산업화라 할 수 있는, 「건축 자재와 테크놀로지의 산업화」(1)은 주거의 매개변인인 「자연환경과 건축 테크놀로지」(A)에 곧바로 결부된다. 그리고 「공업의 비중강화와 농업의 약화 및 변신」(2)은 「생산방식」(C)과 연계되며, 「이촌향도와 도시화」(3)는 지역 간의 인구밀도의 차이를 야기하면서 「지역적 인구밀도」(G)에, 「확대가족의 기본가족으로의 변화」(4)와 「가구의 소비단위화」(5)는 「가족구조와 가구집단」(D)

에, 「이웃관계의 약화」(6)는 「사회구조」(E)에 결부된다. 그리고 「새로운 상품의 부단한 창출」(7)은 「일상생활의 형태와 도구들」(B)에, 전통적 「가치체계와 표상체계의 붕괴」는 「관념체계」(F)에 각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 주거와 산업화 간의 매개변인을 통한 관계



그러면 산업화로 인한 매개변인들의 변화가 어떻게 주거공간의 재구조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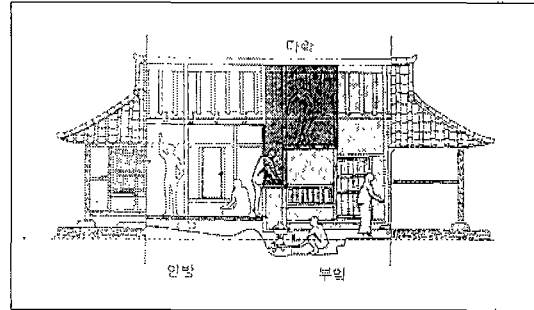
1. 건축자재와 테크놀로지의 산업화

건축 자재와 테크놀로지 차원에서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물질적으로 구성되는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화된 건축 자재와 설비(예컨대 난방 형태)의 발달은 그 이전의 자연에서 얻은 자재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바라는 바의 좋은 효과와 편리함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간의 구조가 변형된다. 예를 들자면, 판유리를 이용해서 대청에 문을 설치하여 대청이라는 공간을 외기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유리를 통해 채광이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처마의 길이를 늘이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슬레이트와 기계톱으로 자른 각목, 그리고 못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기와 지붕에 덧대어 처마를 연장하고 나아가서 이렇게 차양으로 덮인 공간을 다시 비닐로 에워싸고 문을 내어 내부공간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또다른 예를 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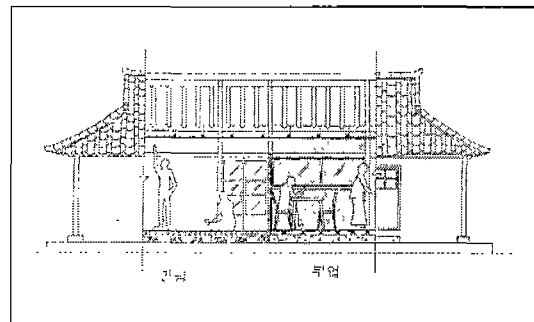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엌의 난방과 설비의 변화는 먼저 바닥 높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화 이전에는 네 가지의 바닥 높이(낮은 순서대로 말하면, 부엌, 마당, 방과 대청, 다락)가 있었으나 산업화 이후에는 부엌 바닥이 높아져서 방, 대청 등의 바닥과 같은 높이를 이루게 된다. 또한 부엌에 상하수도 설비를 갖추므로써 취수와 하수를 위해 마당이나 외부로 연결되던 동선이 부엌 안으로 한정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정화조를 도입함으로써 이전에는 위생을 이유로 혹은 거름을 위해 모아둘 목적으로 안채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화장실이 내부로 이동하기도 한다. 산업화된 새로운 건축자재의 도입에 의한 공간의 변화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활동방식의 변화를 수반한다. 예컨대, 부엌, 대청, 안방의 바닥 수준의 동일화는 이전에는 부엌에서 신발을 신었지만 이제 신발을 신지 않게 되었고, 부엌이 마당을 통해 안방 등의 내부 공간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안방, 대청과 곧바로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특정한 건축적 설비를 채택할 때의 본래의 의도 말고도 그러한 설비가 가져오는 기대하지 못했던 부차적인 효과들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위에서 사례를 든 건축 공간의 변화는 주거 공간을 자연에 대해서 닫히고 외부의 시선이 차단되는 내밀한 공간으로의 변화에 기여한다.

2. 산업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형태 변화

산업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형태 변화가 주거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일상생활은 그것을 뒷받침할 물질적인 도구들을 갖는다. 그리하여 산업화된 생활 용품들의 사용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활동의 수준과 관련이 되지만, 그것은 물질적인 대상으로서 언제나 일정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건축 공간의 구조화(위상론적인 구조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도시의 근대 주택에 맞추어진 큰 규모의 통합형 가구의 전통주택 내의 도입은 안방의 낮은 천정과와 비좁음 때문에 때로는 과시를 위해 대청에



산업화 이전¹⁰⁾ (: 안마당의 바닥높이)



산업화 이후 (: 안마당의 바닥높이)

그림 1. 산업화이전과 이후의 부엌 바닥 높이의 변화 (출처: KIM 1999, 55 쪽)

놓이기 마련이며 그 결과로 개방공간이었던 대청의 폐쇄화와 내부공간화에 일조를 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냉장고의 사용과 먹거리의 공장제품의 사용은 장독대와 찬장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그리고 장독대의 소멸 혹은 기능 약화는 부엌에서 장독대로 이어지는 동선을 없앴으로써 주거 공간의 폐쇄화에 기여를 하게 된다. 또 선풍기의 사용은 이전에 바람이 원활히 유통하도록 앞뒤가 트여 있던 대청이 닫히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3. 산업화로 인한 생산방식의 변화

산업화로 인한 생산방식의 변화가 전통주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농업 생산 내부에서의 변화를 보면, 논밭갈이와 수송에서 경운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전에 논밭갈이와 운송에 동원되었던 소의 사육이 불필요해지

10) Chung 1987, 102쪽의 그림을 부분 수정한 것임.

표 2. 산업화에 따른 거주 공간을 구조화하는 요인들의 변화

매개변인 \ 시기	산업화 이전	산업화 이후
<A> 자연환경 과 테크놀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 : 덮고 습함 ⇒ 대청마루 (개방) • 겨울 : 춥고 건조함 ⇒ 온돌방 • 화장실 : 자연식(먼곳에 분리, 비료 활용) • 부엌 : 마당과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당보다 높이가 낮음(연료와 관련된 아궁이 난방방식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유리를 이용하여 대청에 문 설비 ⇒ 대청의 닫힘 • 화장실 : 수세식 (내부로 이동) • 부엌 : 실내와 소통 (상하수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바닥과 높이가 같이짐 (보일러의 사용으로 효율적인 동선체계 확보에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 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대 : 돌, 다진 흙 - 뼈대 : 나무 - 벽체 : 진흙+볏짚+수숫대/대나무 - 지붕 : 진흙/볏짚/돌 - 마감재 : 한지, 회, 콩기름 - 나무의 연결 : 나무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자재 (개량에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뼈대 : +각재 - 벽체 :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모르타르) - 마감재 : 유리, 비닐, 타일, 페인트 - 나무의 연결 : 쇠못
 일상생활의 형태 와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 : 나무땔감 • 가구 : 소규모 가구 (단일형) • 장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 : 연탄, 전기, 석유, 가스 • 가구 : 대규모 가구 (통합형) • 전자 가사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고 사용 ⇒ 장독대, 찬장의 소멸 - 선풍기 사용 ⇒ 대청의 기능 약화
<C> 생산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 재배의 비중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내기, 김매기, 추수 등에 많은 노동력 필요 → 마을 공동체적 유대 필요 • 쟁기에 의한 논밭갈이 /우마차 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사육 ⇒ 외양간 • 거름의 준비와 보관 ⇒ 췌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목의 다변화 / 온상 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와 제조제 사용 → 일시적 대량의 노동력 불필요 → 마을 공동체 유대의 약화 • 논밭갈이와 수송에 경운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의 불필요 ⇒ 외양간 설비의 불필요 • 화학 비료 사용 ⇒ 췌간 설비의 불필요 • 농업 비중의 약화 / 상업업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거주민의 도시 이주 ⇒ 도시에서의 주택부족 • 수공업의 소멸 ⇒ 집의 생산 기능 약화
<D> 가족구조 와 가구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 가족 • 부계 체계 • 부처 거주 • 2-4 세대의 동거 • 생산과 소비의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가족 (아들가족 부모가족에서 분리되어 도시이주) ⇒ 남는 공간의 용도 재조정 • 신처거주 • 1-2 세대의 동거 • 소비의 단위
<E> 사회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촌락민 간의 강한 유대 (이웃 관계의 중요성) ⇒ 대청, 사랑방 • 지주와 소장농 간의 유사봉건적 위계 관계 (1948 토지 개혁 이전) • 장유의 위계 관계 (장유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거주민의 도시 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적 유대의 약화 (이웃 관계의 중요성 약화) ⇒ 대청, 사랑방 기능의 약화 • 계약에 의한 형식적 평등 관계 • 장유의 위계 관계의 약화
<F> 관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신(家神: 성주, 삼신, 조왕, 업 등) 신앙 ⇒ 가신 신위들의 배치 / (출산시) 금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신 신앙의 위축 ⇒ 가신 신위들의 점차적인 소멸 / 금줄 소멸
<G> 지역적 인구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인구밀도 ⇒ 단층 / 여유로운 매개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촌향도, 도시화로 인한 인구밀도의 변화 ⇒ 다가구 주택화(고밀화된 곳) / 버려짐(저밀화된 곳)

* 보기 → : 비건축적 차원의 영향, ⇒ : 건축적 영역에서의 영향, + : 추가되는 항목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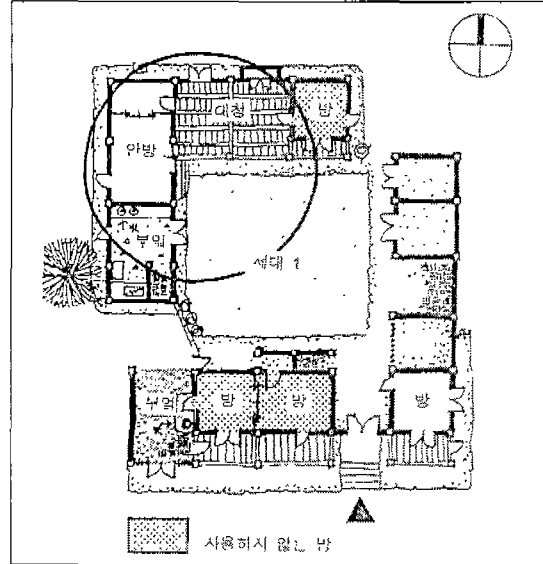
면서 외양간 또한 쓸모가 없어진다. 또 화학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잿간의 설비를 불필요하게 만들고 이것은 화장실의 내부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해 준다. 벼농사의 기계화와 제초제의 사용, 그리고 작목의 다변화와 시설제배 등은 이전에 모심기나 김매기 때 요구되었던 일시적인 대량의 노동력을 불필요하게 만듦으로써 두레나 품앗이 등과 같은 협동노동이 사라진다. 이것은 다시 이웃관계와 마을공동체의 유대를 약화시킨다. 이 점은 또다른 매개변인인 「사회구조」(E)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거 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상공업의 발달에 의한 농업의 비중 약화는 이농을 야기한다.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 탈농의 경우에 이전에 농업용 공간이었던 것이 공부방이나 셋방으로 개조되거나 방치된다. 이촌향도에 의해 도시에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부족이, 농촌에서는 공간이 남아도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다른 매개변인인 지역적 인구밀도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주거 공간에 나타나게 된다.

4. 가족구조와 가구집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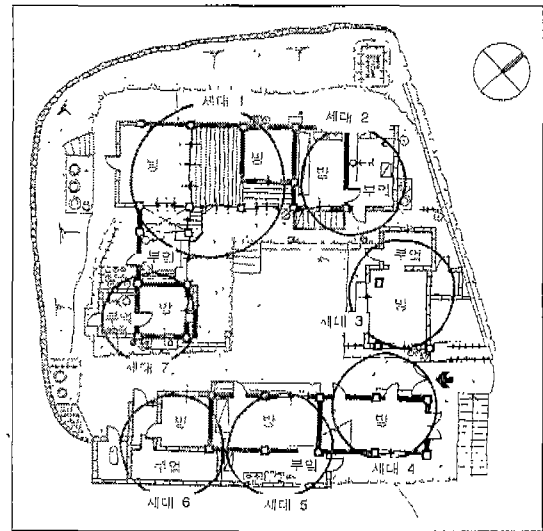
산업화로 인한 가족구조와 가구집단의 변화가 주거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산업화로 말미암은 확대가족의 기본가족으로의 축소는 대체로 아들 가족의 부모 가족에서 분리되어 도시로 이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주거 공간의 배분 속에 표현된다. 건축 공간의 재조직을 통한 용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대도시에 가까운 곳 : 셋방, 아이돌 공부방, 대도시에서 먼 곳 : 방치되거나 창고로). 또한 가구집단이 산업화로 인해 생산 단위로서의 기능을 잃게 됨으로써, 종래에 생산 활동에 배분되었던 공간들(광, 외양간, 잿간, 마당 등)이 건축 공간의 재조직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바뀌거나 사라진다. 결국 이 두 가지 모두 물질적 공간(건축 공간)의 조직화의 수준에 반영되는 것이다.

5. 사회구조와 이웃관계의 변화

산업화로 인한 사회구조와 이웃관계의 변화는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전통주택의 경우



대도시에서 가까운 전통주택의 경우

그림 2. 전통주택에 나타나는 산업화 이후의 거주 세대수와 공간 점유 양상(출처: KIM 1999, 79-80 쪽)

주거 공간의 재조직화를 가져온다. 농촌거주민의 도시이주, 농업구조의 변화 등이 초래하는 마을공동체의 유대와 이웃관계 등의 약화 또한 건축 공간의 수준에 나타나게 된다. 예전에 이웃과의 교제에 일익을 담당하던 사랑방과 대청의 기능이 약화된다. 특히 사랑방의 경우에 소멸되는 사례

가 많다.¹¹⁾

6. 관념체계의 변화

산업화로 인한 관념체계의 변화는 주거공간의 변화를 초래한다. 산업화에 따른 기술 발달이 주는 자연에 대한 통제력의 증대는 자연의 불가해한 측면의 상대적인 감소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상징적인 행동의 차원에 속한 것이지만,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 곧 의례의 수행과 결부된 물질적인 대상들의 배치의 변화로도 표현된다. 대청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던 성주항아리와 감실의 소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7. 지역적 인구밀도의 변화

산업화로 초래된 지역적 인구밀도의 변화 또한 전통 주거공간의 재구조화에 작용한다. 산업화로 인한 이농과 도시화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통해서 주거공간 속에 나타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거대도시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전통 주택은 이전의 농업용 공간의 개조와 증축을 통해 일종의 다가구 주택으로 변모되고 시골의 주택은 아들 부부의 대도시로의 이주를 통해 많은 공간이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향을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7 가지의 매개변인들이 주거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현실 속에서는 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총체적인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일정한 방향으로의 주거공간의 재구조화를 가져온다.¹²⁾ 한국의 전통주택이 산업화로 인해 전통적인 배치를 벗어나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마을 및 자연환경에 대한 개방, 사회적인 위계와 친밀함의 정도를 반영하는 공간의 위계성, 외부로부터 내부로의 점진적인 이행 등의 특징을 지니던 한국 전통주택의 공간배치(Kim 1999)가, 위

에서 살펴본 바대로 해체되면서 마을과 자연환경에 대해 닫히고 집의 안과 밖이 단절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으로써 전통주거공간이 지니던 공적, 사회적 성격이 크게 약화되고 내밀성과 사적인 성격이 강해진다.¹³⁾

V. 맺음말

우리는 본 논문에서 전통주택과 산업화의 관계를 통해 주거공간의 구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들을 밝히고 그 영향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주거와 산업화의 개념을 확장하여 이 두 가지가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매개변인들에 대한 확인을 통해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내재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서 산업화가 전통주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산업화와 주거가 뒤얽히는 사회문화적인 차원들에 생기는 변화가 주거 공간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것들을 매개변인으로 간주하였다. 즉 산업화는 주거공간을 구조화하는 매개변인들에 영향을 미쳐 전통 주거공간의 재구조화를 야기한다. 이때 이러한 변인들은 독립적이며 개별적으로 주거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속에서 중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로 이전에 마을과 자연에 대해 열려 있던 전통주택의 공간이 닫히고 전통 주거 공간이 지니던 공적·사회적 성격이 크게 약화되는 반면에 사적인 성격이 강해지는 것이다.

13) 그러나 근대주거에서 나타나는 내밀성의 배치를 향한 재구조화를 본격적으로 보여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전통주택의 기존의 뼈대가 주는 제약으로 내밀한 공간배치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 주택의 개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곧 하나의 지붕과 하나의 외벽 안에 가족생활이 담기지 못하고 바깥채로까지 넘치는 경향을 보인다. 전통적 주거의 탈구조화와 새로운 산업사회의 주거로의 재구조화는 이미 존재하는 전통주택의 개축과, 산업화된 자재와 테크놀로지에 의한 근대적 형태의 주택들의 신축 등을 포함하는 하나의 전체 속에서 이루어진다.

11) 이 경우 대개는 아이들의 공부방 등으로 용도가 바뀐다.

12) 이러한 매개변인들 자체는 사회문화체계를 구성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작용 이전에도 상호 간에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주제인, 산업화가 전통주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주거를 사회문화적인 체계 속에서 검토함으로써 인문사회과학과의 협력의 길을 추구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정아. 1989. 「주생활 풍속」,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학술총서 IV.
- 2) 김정아. 1996. 「주생활 풍속」, 『구리시지(상) — 역사와 문화 유산』, 구리시지 편찬위원회.
- 3) Kim, Jeong-Ah. 1999. *Structuration et destructuration spatiales de l'habitation traditionnelle coréenne — ses transformations consecutives à l'industrialisation*. Mémoire du DEA, Ecole d'architecture de Paris-Belleville. Paris.
- 4) 로저 키징. 1989. 『현대문화인류학』. (전경수 옮김). 현음사. (Roger Keesing. *Cultural Anthropology: A Contemporary perspective*. Holt, Rinehart and Winston)
- 5) 손세관. 1993.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 6) 신영순. 1993. 『조왕 신앙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신영훈. 1983. 『한국의 살림집』 (상). 열화당.
- 8) 이진경. 2000.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 9) 茂木計一郎. 1991. 『中國民居の空間を探る: 群居類住—“光・水・土” 中國東南部の住空間』. 茂木計一郎, 稻次敏郎, 片山和俊. (株)建築資料研究社.
- 10) Bee, Robert L.. 1974. *Patterns and Processes: An Introduction to Anthropological Strategies for the Study of Sociocultural Change*. New York: The Free Press.
- 11) Chung, Guyon. 1987. 'Autour de la pièce cuisine dans la maison traditionnelle coréenne'. *Espaces des autres: lectures anthropologiques d'architectures—penser l'espace*. Les Editions de la villette.
- 12) Clément, Pierre & Charpentier, Sophie. 1978. *Eléments comparatifs sur les habitations des ethnies de langues thai*. Paris: Centre d'etudes et de recherches architecturales. E.N.S.B.A.
- 13) Condominas, Georges. 1957. *Nous avons mangé la forêt*. Paris: Mercure de France.
- 14) Elias. N.. 1983. *The Court Society*. (tr. by E. Jephcott) Pantheon Books. (*Die hofische Gesellschaft*).
- 15) Lauwe, Chombart de, Paul-Henry, etc.. 1967. *Famille et habitation I : sciences humaines et conceptions de l'habitation*. Paris: CNRS.
- 16) Marois, Alexandra. 1998. *Les transformations de l'habitat chez les Mongols bargas de Mongolie intérieure (Chine)*. Mémoire de maîtrise. Université de Paris X-Nanterre.
- 17) Moley, Christian. 1984. *Les structures de la maison*. Paris: Presses Orientalistes de France.
- 18) Perroux, François. 1962. *L'économie des jeunes nations. 1. Industrialisation et groupements de nation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19) Rapoport, Amos. 1969. *House Form and Cultur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20) René, Maunier. 1926. *La construction collective de la maison Kabylie*. Paris: Institut d'Ethnologie.
- 21) Tokarev, S. 1974. 'Methods of Ethnographic Research into Material Culture'. In: *Soviet Ethnology and Anthropology Today*. (ed. by Yu. Bromley). Paris: Mouton. pp. 175-194.
- 22) Villele, G. de. 1951. 'L'évolution démographique et son influence sur l'habitat'. *Urbanisme*. No. 7-8.
- 23) Waterson, Roxana. 1990. *The Living House: An Anthropology of Architecture in South-East Asia*. London: Oxford Univ. Press.